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5.06.11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유럽의회 엘러의원, FP10 수립 작업 시급하다고 경고(6.5)

- 집행위는 7월 16일 다년재정프레임워크(MFF)와 함께 FP10 관련 법안을 발표할 예정. 이에 앞서 차기 FP10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
-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6월 4일 연설에서 FP10이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함. 동시에 FP10과 유럽경쟁력기금 (ECF)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
- 엘러의원은 FP10이 정치적 수준에서는 광범위한 지침만 설정하고, 구체적 워크프로그램 설계 등 실제 집행은 연구 커뮤니티에 맡기는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안

○ 유럽 주요 대학협회, 집중된 호라이즌 유럽 공모 마감일이 수년간의 혼란 초래할 것이라 경고(6.10)

- 유럽연구중심대학연합(The Guild)과 유럽과학기술대학연합(Cesaer)은 공동 성명에서 호라이즌 유럽이 2025년 9월에 과도하게 집중된 공모 마감일을 설정함에 따라, 유럽 대학 연구관리자와 연구자들이 업무량 압박을 겪고 있으며, 이는 연구지원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함
- 협회들은 분산된 공모 마감 일정은 우수한 연구자를 공정하게 지원하는 데 필수적임을 주장하며 향후 공모 마감일이 연중 균등하게 분산되고 예측 가능하도록 EU와 회원국들이 조치할 것을 촉구

○ 집행위, 2026년 호라이즌 유럽 예산 2억 1,100만 유로 증액 제안(6.4)

-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EU 예산안에서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의 예산을 전년 대비 2억 1,100만 유로 증액한 약 129억 7,400만 유로로 제안함(2025년 대비 1.7% 증가)
- 필라1 1억 200만 유로, 필라2 4,000만 유로, 필라3 500만 유로 증액

○ (기타) ▲덴마크, EU 이사회 의장국으로 연구 평가 개혁 등 과학 분야 주요 의제 추진(6.2) ▲European Semester Spring Packages, 연구 투자 및 혁신으로 경쟁력 제고(6.4) ▲EU R&I 자금 지원, 미국과 중국에 비해 규모 작고 분산되어 있어(6.9)